

**안녕하십니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입니다.**

올해는 메르스 사태로 온 국민이 힘들어 하면서도, 사회적 아픔을 함께 치유하자며 지혜로운 마음을 크게 모으기도 했습니다. 남북한 긴장이 어느 해보다 고조되어 큰 우려를 낳았지만, 가을에 접어들면서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오랜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산가족들이 혈육의 끈끈한 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 큰 다행입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땅 네팔 국민들이 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불탑의 나라로 유명한 미얀마의 신심 깊은 불자들이 홍수 피해를 입어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우리 종단은 국내의 힘든 이웃들뿐 아니라 먼 이국의 동업종생들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지만, 그들이 겪는 고통을 모두 다 이루어만져 드리지 못한 안타까움이 가슴을 시리게 합니다. 십시일반의 마음을 내주신 분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석을 맞아 김선우 시인의 소설 『발원』을 보내드립니다. 유려한 문장과 탁월한 상상력이 더해진 『발원』은 ‘1400년 전 역사 속 인물 원효’를 지금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는 ‘인간 원효’로 탈바꿈해주었고, 그동안 ‘원효의 그림자’로 희미하게 머물던 요석 공주를 ‘운명에 맞서는 당당한 여성’으로 그려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원효스님과 요석공주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갖는 인물도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사 뿐 아니라 한국 사상사에서 우뚝 솟아 빛나는 원효스님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스님의 삶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에 친절한 안내서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효스님이 오로지 원하던 그대로, 모두 “부처로 살겠다!”는 원을 세우고 실천해야 할 때일 것입니다. 승속을 초월한 불제자들은 원효스님이 살았던 불이(不二)의 삶을 좇아서로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어 탁마하며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보내드리는 ‘원효스님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발원’이 되고, 스님의 가르침대로 ‘歸一心源 饒益衆生’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추석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조상과 자연의 은혜에 특별한 감사를 드리며 밝은 희망을 나누는 날입니다. 우리 종단의 구성원들도 새로 공포한 『승가청규』의 정신에 따라 깨끗한 승가를 확립하여 부처님 제자의 바른 길을 걸어갈 것이며, 그래서 국민 대중들에게 희망을 드릴 것입니다. 모두 청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기2559년 추석에